<2015년 2월 22일 주일말씀>

삼위일체는 <감동>으로 역사하신다

본 문 디모데후서 3장 16-17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뜨거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 말씀의 주제는 '삼위일체는 감동으로 역사하신다.' 입니다.

◎ 성경을 보고,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
<감동>으로 역사하신 내용이 수백 군데 나옵니다.

오늘은 그 중의 한 가지만 성경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.

◎ 먼저 <감동>에 대해서 잠깐 전초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전초>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

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, 우리를 도우시고,
우리를 향해 뜻을 펴시는 방법은 많습니다.

그 방법 중의 하나가
<감동>으로 행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<끝>

◆ 각자 처한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
그때마다 <감동>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<감동>을 주시면,
'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' 이 마음에 감동이 되며 느껴집니다.

◆ 그러나 <감동>을 줘도 '자기를 중심' 해서 생각하면
육적으로 생각되고 육적으로 행하게 됩니다.

◆ 또 <감동>을 받았어도 '자기 환경과 현실' 은 그렇지 않으니,
그 감동대로 행하지 않기도 합니다.

◆ 특히 사고 전에, 급할 때에 <감동>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.

◆ **<감동>을 잊으면 죽습니다.**

*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
'삼위의 생각' 을 <감동>으로 전해 주셨든지

'하고자 하는 말' 을 〈감동〉으로 전해 주셨으면,
삼위의 몸이 친히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.

◆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〈감동〉을 받았으면
즉시 '성자와 주' 를 부르고 같이 대화하면서 행해야 됩니다.

◆ 감동됐을 때 행해야 됩니다.

◆ **행하면 감동됩니다.**

고로 〈감동〉만 기다리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.
행하면 감동됩니다.

◆ 〈자기 책임분담〉은 '자기' 가 해야 감동되고,
〈하나님, 성령님, 성자께 해당되는 것〉은 '삼위' 가 감동시키십니다.

◆ **〈감동〉을 받으면 '성자의 뜻' 이 생각나고**
'하고 싶은 마음' 이 생깁니다.

◆ 〈성령의 감동〉을 받으면 **'성자의 뜻'** 이 생각나기도 하고
'하고 싶은 마음' 이 생기기도 하지만,
신이 역사하시니 몸이 뜨겁거나, 따뜻하거나, 훈훈하거나,
짜릿하거나, 눈물이 나는 등
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순간의 반응이 실제로 일어납니다.

하기 싫게 하여 그 일을 안 하게 해 주기도 하시고,
하고 싶게 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해 주기도 하십니다.

◆ **삼위일체는 〈감동〉으로 말씀하시니,**

<감동 자체>가 '삼위의 말씀' 입니다.

고로 감동을 받으면, 정말 <삼위가 주시는 감동>이 맞는지 분별하고 <삼위가 주시는 감동>이면 즉시 행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<어떤 공적인 일>을 하려는데
하고 싶은 마음 40%, 하기 싫은 마음 60%였습니다.

기도하니, <감동>이 왔습니다.
하고 싶은 마음 80%, 하기 싫은 마음 20%로 바뀌었습니다.

그래도 '내 주관인가?' 생각하고, 결재를 못 하고 망설였습니다.

◆ 그래서 성자를 부르며 대화했습니다.

이때 성자는 말씀하시기를
"<밭에 묻힌 보화>도 분별하지 못하면 발견하고도 못 얻는다.
하는 것이 맞는지 분별하도록 계산해 보아라." 하셨습니다.

◆ 성자의 말씀을 듣고
'하는 것' 과 '안 하는 것' 을 두고 계산했습니다.

◆ 계산해 보니, '100% 해야 되는 일' 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.

'<밭에 묻힌 보화>를 발견한 자가
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<밭>을 산다 해도
그것은 '밭 값' 만 계산한 것이지 '보화 값' 은 아니다.

‘밭 값’ 만 내고 밭을 사면,
〈밭에 묻힌 보화〉는 거저 얻는 것이다.

〈밭에 묻힌 보화〉를 보고
공정한 값을 주고 밭을 사는 것이다.’ 하고 깨달았습니다.

◆ 이와 같이 따지고 계산하니,
‘100% 해야 될 일’ 임을 확실히 알고 결재를 하려 했습니다.

◆ 그때 성자는 ‘또 한 가지’ 를 깨닫게 하셨습니다.

“나 성자가 그것을 〈섭리사 축복의 선물〉로 주려고
지금껏 남에게 안 주고 잡아 놓은 것이다.

그것을 사면, 쓰기에 따라서 ‘더욱 귀한 보화’ 가 된다.
쓰는 만큼 ‘보화’ 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〈성자와 성령의 감동〉은
- 차원 높게 생각하고 깨닫게 하고,
- 잘 계산하여 분별하게 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성자와 성령께서 〈감동〉을 주실 때는
‘성자와 성령의 마음’ 이 자기 마음에 와 닿습니다.

그때는 마치 햇빛이 자기를 비추어
햇빛이 자기 몸에 닿는 순간과 같습니다.

고로 〈성자와 성령의 감동〉을 받으면

즉시 성자와 주와 대화하면서 확인하고
그 감동에 집중하여 감동을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<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>가 발생할 때도 성자와 성령은
'어른' 이 있는데도 '어린아이' 에게 감동을 주십니다.

강한 현상으로 '징조' 를 주며 감동을 주십니다.

지난날 이러한 것들을 보고, 듣고, 겪지 않았습니까?

◎ 한 가지 사연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◆ 한국에 아주 유명한 <삼풍백화점>이 있었습니다.
이 백화점은 고급 백화점으로 유명했습니다.

1995년 6월,
이 <삼품백화점>이 붕괴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.

그 유명한 고급 백화점이 '부실 공사' 로 인해 붕괴된 것입니다.

그로 인해서 1천여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.

◆ 이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.
그러나 감동을 받고 행하여 기적적으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. <끝>

◆ 현재 섭리사에 온 사람 중에서도

그날 '삼풍백화점 붕괴 사고'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.

그때는 '세 살배기 아기'였는데,
현재는 '20대'가 되어 섭리사를 뛰고 있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◆ '삼품백화점이 무너지기 직전'에 엄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
'백화점 안'에서 물건을 사러 돌아다녔습니다.

그런데 성령님과 성자는 '엄마'에게 감동을 안 주시고
'세 살짜리 어린아이'에게 역사하여 감동을 주셨습니다.

갑자기 어린아이의 머리를 아프게 하여
어린아이는 막 울면서 엄마한테 나가자고 했습니다.

아이가 막 우니,
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'백화점 밖'으로 나와서
바로 집으로 갔습니다.

백화점과 집이 가까워서
백화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몇 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.

◆ 집에 와서 TV를 켰는데,
그 백화점이 과자부스러기처럼 무너져 있는 모습이
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.

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으니,
백화점 안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.

<감동>을 무시하지 않고 행하여 살았습니다.

이래도 〈감동〉을 무시하고 살겠습니까? <끝>

◆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! (엄마, 여자들의 심리 생각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전한다.)

백화점에서 한창 물건을 사러 고르러 다니는데
아이가 나가자고 한다고 나가겠습니까?

백화점 문 닫기 전에 물건을 급히 사려고 하지, 안 나갑니다.

남편이나 다 큰 아들딸이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갑니다.
아마 **"혼자 먼저 나가."** 했을 것입니다.

누가 **"곧 이 건물이 무너지니, 나가자!"** 하면,
"이 튼튼한 건물이 왜 무너져? 누가 그 말을 들을까 무섭네." 하며
안 나갈 것입니다.

◆ 고로 성자도 성령님도 급절한 순간에 〈강렬한 감동〉을 주되,
그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합당하게 주십니다.

- 아프게 하여 그 자리를 피하게 하기도 하고,
- 순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,
- 누가 때리게 하기도 하고,
- 하던 일이 틀어져서 안 되게 하기도 하고,
- 누가 혼을 내게 하는 등

각종 방법을 총동원하여 〈감동〉을 주며 역사하십니다.

◆ 그렇다면, 왜 '어른인 엄마'에게 감동을 안 주고
'세 살짜리 어린아이'에게 감동을 주셨을까요?

성자가 택하여 키우시기 때문입니다.

어린아이가 크면서, 성자와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여
순간 감동을 주시어 목숨을 살려 준 사연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

"나와 같이 모두 지난날 도와주셨고,
앞으로도 도와주어 잘되게 해 주시고,
육뿐만 아니라 영도 구원하여 잘되게 해 주신다." 하며,
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사명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

◆ '삼풍백화점 붕괴 직전'에 살아난 그 어린아이가 커서
10대에 <충주 지역>에서 섭리사로 전도되었습니다.

그리고 현재 20대가 되었습니다.

그 어머니는 복음을 들었으나, 교회에는 안 나옵니다.

◆ 지금 그 사람은 성자께서 계시를 주시어
지난날을 깨닫게 해 주시며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.

◆ <성자가 택하신 자>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히 지키심을 깨닫고,
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
그렇게도 지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바랍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◆ 1995년 '삼풍백화점 붕괴 사고' 전에
1994년 10월에 '성수대교 붕괴 사고'가 있었습니다.

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고 학생들은 등교를 하던 그 시간에
성수대교의 상판 48m가 무너져 내려서
버스와 자동차 6대 이상이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

무고한 생명 3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<끝>

◆ 이때 이 아이의 아빠가 출근을 하기 위해 〈성수대교〉를 지나려는데,
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
〈성수대교 진입로〉 바로 앞에서 유턴을 했답니다.

몇 분간 화장실에 들렀다가 다시 성수대교로 향하던 중에
차들이 앞으로 못 가고 멈춰서 있기에 보니,
분명 있어야 될 〈성수대교의 일부 상판〉이 무너져 있었답니다.

만약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그 감동을 무시하고
'다리를 건너간 후에 화장실에 가야지.' 하고
그냥 다리를 건넜다면
이 아이의 아빠는 〈성수대교 중간 즈음〉에 가서
다리가 무너짐과 동시에 아래로 추락하여 죽었을 것입니다.

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살았습니다.

◆ **'택한 자 한 사람' 으로 인하여**
그 아빠도 살고 엄마도 살았습니다.

◆ **'택한 자, 구원받는 자' 가 하기에 따라서**
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,
〈육계의 육〉뿐 아니라 〈영계의 영〉까지 지켜 주십니다.

성자께서 '사랑하는 자' 로 인해
그 가정까지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.

◆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날,
섭리인 7~8명이 감동을 받고 순간 그 건물에서 나와 살았습니다.

◆ ‘처’를 보고서 ‘처갓집’을 돕듯이
‘택한 자’를 보고서 ‘그 가정, 부모, 형제’를 도우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성자와 성령께서 〈감동〉을 주실 때는
마음으로 깨닫게 하며 감동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
수십 가지로 행하십니다.

‘갈 길’이 있는데 감동을 줘도 안 가고 ‘자기 할 일’만 계속하면
‘하고 있던 그 일’이 틀어지게 하여 더 이상 못 하게 하시고,
‘성자가 원하신 갈 길’을 가게 하십니다.

그런데도 계속 ‘자기 할 일’을 하면,
그때는 책망하면서 ‘매’로 때리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
선생에게 〈감동〉을 주시며 행한 사연 하나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5>

◆ 〈월명동 성지 땅〉을 개발할 때
처음에는 앞산을 ‘돌 조경’으로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고,
‘시멘트 계단’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.

‘시멘트 계단’을 만들기 위해 먼저는 나무로 틀을 짜고 있었습니다.

◆ 그날은 〈서울 효창운동장〉에서
〈실업 축구팀 전국 리그전〉이 있는 날이었는데,
섭리사에도 '실업 축구팀' 이 있어서
선생도 같이 경기를 하기 위해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.

◆ 그래서 일을 하다가 '월명동 전망대의 능선' 을 타고서
'앞산이 제일 잘 보이는 위치' 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.

그런데 그때 갑자기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
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았습니다.

'오늘 서울로 축구하러 가려는데 못 가게 막으시는 건가?'
하고 즉시 기도했습니다.

◆ 이때 삼위는 〈감동〉으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.

"그게 아니다.

너 지금 그 자리에서 '앞산' 이 보이지?

지금 그곳에 '시멘트 계단' 을 만들려고
나무로 틀을 짜고 있는 거 보이지?

시멘트로 계단을 만들어서 청중이 앉는다고 생각해 봐라.
얼마나 보기 싫으냐. 앞날 보고 행해라.

이것을 봐라. 나의 구상이다." 하셨습니다.

◆ 그때 〈돌로 쌓은 조경〉이 내 눈앞에 훤히 보였습니다.

크고 웅장한 바위들을 쌓은 돌 조경에

빨갛게 핀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.

마치 '천국의 한 장면' 같이 환상적이고 신비로웠습니다.

◆ 성자는 말씀하시기를
"이같이 해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지 않냐.
이렇게 만들자. 나의 구상이다." 하셨습니다.

◆ **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**
그날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여 기도하게 하셨고,
그때 '하나님의 구상' 을 보여 주시며 <감동>으로 계시하셨습니다.

◆ 그날 즉시 '시멘트 계단' 을 만들기 위해
나무로 틀을 짜는 일을 중지하게 하고,
예정대로 서울에 가서 축구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.

그리고 갔다 와서 즉시 '크고 웅장한 돌들' 을 구하여
월명동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.

◆ 그리고 그날 '하나님의 구상' 을 받은 대로
<월명동 앞산 돌 조경>을 완성했습니다. <끝>

◆ **'자기가 가는 길' 이 잘못되어** 못 가게 막으실 때도 있지만
'삼위일체의 뜻' 을 전하기 위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6>

◆ 어느 때는 마치 열차가 달리는 건널목을 못 건너가게 막듯이
순간 <감동>을 주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.

이는 **'위험한 것을 피한 후에 가라.'** 함이고,
'하늘의 뜻대로 해라.' 함입니다. <끝>

◆ 성자는 말씀하시기를

"항상 생각해라.

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를 생각하는 것이
곧 눈으로 쳐다보는 것과 똑같다.

늘 생각해야 〈감동〉을 주면 바로 안다." 하셨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지금부터 〈감동〉에 대해 쭉 말씀하겠습니다.

◆ 〈하나님의 뜻〉을 행하게 할 때는...

첫째,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〈말씀〉을 주어
방향을 알려 주며 행하게 하십니다.

둘째, 〈생각〉나게 하십니다.

셋째, 〈만물〉을 통해 보여 주며 말씀하여 행하게 하십니다.

넷째, 〈보여 줄 만물〉이 없을 때는
〈감동〉으로 도우시며 행하게 하십니다.

어느 때는 〈보여 줄 만물〉이 있어도

감동을 잘 받는 자들에게는 <감동>만 주시며 행하게 하십니다.

다섯째, <여건>을 틀어 역사하십니다.

◆ 어느 때는 <감동의 역사>만 하십니다.

◆ 감동을 **크고 강하게 받아야** 행해집니다.
감동을 **약하게 받으면** 행해지지 않습니다.

◆ <감동>을 크고 강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
기도함으로 신령해져야 <감동>을 크고 강하게 받습니다.

그러면 말씀을 듣든지, 무엇을 행하든지 <감동>을 강하게 받고,
그 힘으로 즉시 행하게 됩니다.

◆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어 고통스러울 때는
"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지?" 하게 됩니다.

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,
<감동>을 받았는데도 감동을 무시하고 행했기에
일이 잘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

그래서 <감동>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.

<감동>을 강하게 받아야
그냥 지나치지 않고 감동대로 행하여 얻기 때문입니다.

고로 기도하여 마치 물을 끓이듯
생각을 뜨겁게 하고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

물을 안 끓이면, 음식도 못 합니다.

이와 같이 **정신과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,**
감동을 못 받아서 못 행합니다.

◆ **전도할 때도 '뜻 있는 생명' 이 있으면**
〈전도자〉도 감동시키시고 〈전도될 대상〉도 감동시키십니다.

그러나 그 감동은 '순간' 입니다.

고로 감동받으면,
즉시 행하여 '정말 뜻 있는 생명' 인지 확인해야 됩니다.

◆ **〈감동〉은 '행할 때' 더욱 강하게 옵니다.**

고로 전도하려면, **나가서 전도해야** 감동이 더욱 강하게 옵니다.

휴거되려면 **자꾸 행해야** 감동이 강하게 와서
더욱 행함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휴거를 완성하게 됩니다.

◆ **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〈감동〉에 둔합니다.**

◆ **또한 육적인 자는 〈감동〉에 둔하고 〈감동〉을 약하게 받습니다.**
육적인 자란, **'성자와 주를 열을 내서 사랑하지 않는 자'** 입니다.

그래서 때로는 '영적인 자' 를 먼저 감동시키시고,
그 감동을 '육적인 자' 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'영적인 자' 에게 〈감동〉을 주어 〈계시〉를 주시고,

그 계시를 전하는 사명을 주어 '육적인 자들' 을 깨우쳐 주십니다.

◆ 그러나 누가 '영적인 자' 인지 잘 모릅니다.
그 환경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 '가장 합당한 자' 를 쓰십니다.

◆ <감동>을 받았어도 **감동이 약하면,** 기도하기 바랍니다.
'뜻 있는 것' 이라면, 기도할 때 <강한 감동>이 오게 됩니다.

◆ **<감동>을 귀히 여기고, 공부하고, 깨달아야**
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<감동>을 많이 주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◎ 계속해서 <감동>에 대해서 말씀합니다. 잘 듣기 바랍니다.

◆ **성령이 역사하실 때는**
<충만한 감동>과 <성령의 불>로 뜨겁게 해 주십니다.

◆ 그러나 '성령님' 만 <감동의 역사>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.
'하나님과 성자' 도 '성령' 과 함께 <감동>으로 역사하십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7>

◆ **강하게 감동이 될 때는**
'삼위의 신이 자기 마음에 와 닿은 것' 이며
'삼위의 신이 자기에게 직접 오신 것' 입니다. <끝>

◎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8>

◆ **감동을 받으려면,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불러야 됩니다.**

기도할 때나 평소에나 '성자' 만 불러도
하나님도, 성령님도 같이
〈말씀〉을 주시고 〈감동〉을 주시며 역사하십니다.

삼위일체는 하나 되어 역사하십니다. <끝>

◆ **〈만물〉을 통해서도, 〈사람〉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십니다.**

◎ 〈감동〉을 받으면, 꼭 분별해야 됩니다.

◆ **〈자기 마음이 스스로 자극되어 받는 감동〉**과
〈삼위일체가 역사하여 주시는 감동〉은 엄연히 다릅니다.

고로 감동을 받으면
〈자의적 의지에서 오는 생각〉인지,
〈삼위일체가 주시는 감동〉인지, 기도하여 꼭 분별해야 됩니다.

〈삼위일체가 주시는 감동〉은 **'신적인 느낌'** 이 들면서 오고,
〈자기 육적인 감동과 생각〉은 **'육적인 느낌'** 이 들면서 옵니다.

◆ 또한 **〈사탄이 주는 생각〉**인지,
〈삼위일체가 주시는 감동〉인지, 꼭 분별해야 됩니다.

〈사탄〉은 자체가 '두려운 영' 이며 '불안한 영' 입니다.
고로 사탄이 오면, 그 영향을 받아서 두렵고 불안합니다.

고로 〈사탄의 감동〉이 오면, 즉시 분별할 수 있습니다.

〈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〉는 '편안한 영' 입니다.

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감동이 임하면
그 마음이 임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,
그때의 처지에 따라서 '삼위의 뜻' 이 깨달아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**〈감동〉에 대해서도 배워야**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
그때그때 〈감동〉을 주며 역사하시기 쉽습니다.

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〈감동〉을 주시는 이유는

- '꼭 해야 할 것' 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
- '하나님의 뜻' 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
- '잘못된 길' 로 가는 것을 막고
  '잘못된 일' 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9>

◆ 그러나 〈뇌〉가 '돌' 같이 굳어 있으면, 〈감동〉을 줘도 못 느낍니다.

그때는 〈육체〉에 따끔하게 자극을 주거나 고통을 주어 느끼게 하고,

〈천사〉를 통해서 채찍질하여 이끌어 내시는 등
다양한 방법으로 느끼게 하십니다. <끝>

◆ 하루 중에도 〈감동〉을 많이 주십니다.

그러나 신경 쓰지 않고 귀히 생각하지 않으니
〈감동〉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.

또한 〈감동〉을 많이 주며 역사해 주셔도
신경 쓰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으니 **모르는 것**입니다.

◆ 급절할 때, 위험할 때는 특히 〈감동〉으로 역사해 주십니다.

◆ 또한 '악평자의 글' 을 보거나 '악평' 을 들으면
"읽지 말아라! 듣지 말아라!" 하며
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강하게 감동을 주십니다.

◆ 〈법〉으로 악평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.

악평을 보고 분별하지 못하여
의심하고 오해하고 자기도 같이 악평하니, 그 죄가 큽니다.

◆ 어떤 사람은 '악평' 을 듣고 분별해야 한다고 하며 봅니다.

〈악평〉을 본다고 〈옳은 것〉이 분별되겠습니까?

〈거짓〉을 가지고 〈진실〉을 알려고 하니, 진실을 알게 되겠습니까?
더 〈거짓〉에 빠져서 〈진실〉을 못 보게 됩니다.

〈악〉을 가지고 〈선〉을 알려고 하니, 선을 구분하겠습니까?
더 〈악〉에 빠져서 〈선〉을 못 보게 됩니다.

그 시간에 <말씀>을 보고 <기도>하기 바랍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0>

◆ **<악>을 가지고 <선>을 분별하려 하지 말고,**
<선>을 가지고 <악>을 분별해야 됩니다.

<거짓>을 가지고 <진실>을 분별하려 하지 말고,
<진실>을 가지고 <거짓>을 분별해야 됩니다. <끝>

◆ <악평>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는 자는
<진리>에 확실히 서지 못하여 의심하기 때문이고,
<옳은 것>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.

◆ <악평>도 자꾸 보니 그 말에 자기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,
자꾸 그 말이 생각나서 의심하게 되고, 괴롭고,
자꾸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같이 생각되고,
그 말에 자기 마음이 동조되어 결국 자기도 악평하게 됩니다.

이런 자들은 <휴거>가 아주 늦어지고,
어떤 자들은 아예 <휴거>를 뺏기게 됩니다.

정말 회개하여 100% 근본으로 돌이켜야 됩니다.

◆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나쁜 말을 들었을 때, 악평을 들었을 때, 흔들릴 때, 의심할 때,
특히 더욱 <강한 감동>으로 역사하시며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1>

◆ 과거에 〈감동〉을 줬을 때 감동대로 안 해서
해를 당하고 손해를 본 것들이 많습니다.

◆ 〈감동〉을 잊으면, '꼭 해야 할 일'을 못 해서
'그 일'이 죽습니다.

고로 '얻는 것'도 '축복'도 죽게 됩니다. <끝>

◆ 〈감동의 말씀〉을 듣고 〈감동〉에 대해 알았으니,
〈감동〉을 생명시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.